

전북도, 소상공인 민생회복 금융지원 앞장

2500억원 규모... 도내 8개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

고·중금리 대출 이용 사업자 저금리로 대환 등 추진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에 앞장서기 위해 8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민생회복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30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도내 8개 금융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전라북도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 촉진을 위한 2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민생회복 금융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도가 지난 1회 추경을 통해 확보한 도비 200억원을 전액 출연하고, 12.5배수인 2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이후 도에서 시행한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긴급 유동성 지원 정책에서 위드코로나 상황에 맞춰 일상 회복과정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사업재기 지원을 위한 자금 공급에 중점을 둔다.

이번 소상공인 민생회복 금융지원사업은 지원대상별 총 3개의 보증사업으로 구성된다.

첫번째는 민생회복 금융구조 119 사업으로 기존에 단기 고·중금리의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장기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환 보증 사업이다.

기존에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 받아 대출을 받은 사업자는 기존 보증 범위 내에서 대환 보증이 가능하며, 보증 없이 대출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까지 심사를 통한 대환 보증이 이루어지게 된다.

두번째는 '소기업 육성 4무 안심자금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지원 및 기존 창업자의 재도약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최대 1억원까지 특례보증이 진행되며, 보증료까지 전액 도에서 지원해 성장하는 창업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초 1년간은 무이자 혜택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금융부담이 파격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성실 실재자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다시서기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다시서기 프로젝트'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경기 침체로 인해 폐업하게 된 성실실재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최대 5,000만원 한도로 특례보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재창업자의 금융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1%의 이자 지원도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재기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갖고 있는 재창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특례보증 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도내 사업자는 먼저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30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도내 8개 금융기관(전북신용보증재단, 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소상공인의 일상회복 촉진을 위한 2,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민생회복 금융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통해 특례보증서를 수령한 뒤, 협약에 참여한 7개 금융기관에 방문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내 경제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장기화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대출 중단이 발표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경우 도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경을 통해 신속히 재원을 마련했고 최대한 빠른

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례보증 신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관할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영업점(063-280-3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수 기자



전주권 5개 농·축협 추석맞이 사랑의 쌀 나눔

전주지역 5개 농·축협이 3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백미 10kg 460포(1300만원 상당)를 전주시에 기부했다.

이날 기탁된 백미는 농협 전주완주시군지부(지부장 송혁)와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창수), 전주원예농협(조합장 김우철)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구입했다.

시는 전달된 백미를 어려운 경제 탓에 힘든 명절을 맞이한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송혁 농협 전주완주시군지부장은 "최근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도 돕고,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나눠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백미를 지원해 준 지역 농협에 감사드린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희망이 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역 5개 농·축협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김재훈 기자

美 박람회서 지역기업 수출 성과

전북대 GTEP 사업단, 라스베이거스 소비재전서 해외 판로 개척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이하 GTEP사업단, 단장 김민호)이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 열린 '2022 추계 라스베이거스 소비재전(ASD Market Week 2022)'에서 지역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성과를 올렸다고 30일 밝혔다.

ASD 소비재 전시회는 60년 전통을 자랑하는 전시회로 전 세계 75개국 1,500여개사가 참여, 4,200개 부스를 꾸려 선물용품, 판촉·홍보용품, 펜스·캘리더, 화장품·마음, 휴대폰·인테리어 식품 등 다양한 생활소비재를 선보였다.

GTEP사업단은 지역 내 산학협력 기업인 (주)이디 (주)이디아이, 클리네이치, (주)이디아이마, (주)에스엔플러스 등 5개 기업과 함께 참가했다. 사업단에서는 신준수 학생(농업경제학과)을 비롯해 김시연(무역학과), 임세림(중어중문학과), 황건건(무역학과), 허정우(무역학과), 김태림(무역학과) 학생 등이 함께해 지역기업 제품

홍보에서부터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 샘플 판매, 현지 시장 조사 등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박람회 현장에서 (주)이디는 하루 평균 20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샘플 현장판매로 2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으며, 5만 달러 이상의 계약 상담도 이뤄졌다.

또한 (주)이디아이마는 40건의 상담을 진행, 샘플 현장판매로 1,500달러의 수익을 올렸으며, 2만 달러 이상의 계약 상담이 이뤄졌다. 클리네이치는 50여건의 상담을 통해 해외 수출 계약에 교두보를 마련했다. (주)이디아이마에서는 유력바이어 7명과의 상담을 통해 8,000달러의 수출 계약을 추진 중이며, (주)에스엔플러스는 약 27건의 상담과 함께 추후 계약 논의 중이다.

김민호 단장은 "학생들이 지역 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전 과정에 참여해 무역에 대한 실무능력을 키우고, 해외 판로 개척이 어려운 지역 기업에도 좋



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중 열리는 싱가포르 국제 식품 및 음료박람회와 10월 파리 국제식품 전시회 그리고 11월 싱가포르 코스포프로프 전시회 등에도 참여해 지역 기업 해외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학교 GTEP사업단은 산 업통상지원부가 주관하고, 한국무역협회, 전북도청, 전주시청이 지원하는 글로벌 무역인재양성사업으로, 매년 35명 인력의 학생을 선발해 외국어특강, 무역이론 및 실무교육, 박람회 참가 등 무역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뉴스

도시·농촌 농축협간 상생협력 다짐

전북농협, 도농상생 한마음대회 참여

한마음대회 참여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이 30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2 도농상생 한마음대회'에 참여해 도시·농촌 농축협간 상생협력을 위한 화합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전국 16개 농축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지·소비지 농축협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도농상생기금(3,296억원) 전달식과 최근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농협 지원을 위한 영농자재 전달식이 진행됐다.

도농상생기금은 농촌 농축협의 경제사업 손실보전을 통한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도시 농축협에서 조성한 기금 성격의 자금이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창수), 익산농협(조합장 김병욱), 전주원예농협(조합장 김우철) 등 4개 도시



전북농협이 30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2 도농상생 한마음대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농축협이 기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평균 688억원이 농촌 농축협에 지원되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시설투자 여력이 부족한 농축협 지원과 농촌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마련 등 도시 농축협의 정체성 확립 및 농촌 농축협과 함께하는 농협 구현을 위해 적

극 추진되고 있는 도농상생 공동사업 업무협약식이 있었다.

도농상생 공동사업은 도시·농촌 농축협의 경제사업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조합원의 실익증진 및 사업의 규모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훈 기자

완주 농산물 선물세트 20% 할인

전북농협, 오늘 오전 11시·오후 5시 라이브커머스 통해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이 30일 오전 11시와 오후 5시에 라이브커머스 통해 추석맞이 프리미엄 선물세트와 전라북도 대표 신동진 쌀, 군산짬뽕라면을 특별 할인 판 매한다.

이날 판매되는 선물세트는 잡곡 세트, 표고환향세트, 꽃감 등 완주군 고산농협(조합장 국영석)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구성됐다. 또한, 5화차를 맞는 신동진쌀 할인판 매는 전북 쌀 홍보 및 소비촉진, 판로확대를 위하여 기획한 특별판

매로, 군산 관내에서 생산되는 신동진 쌀과 군산원예농협(조합장 고계곤)에서 지역 특산물 흰찰쌀 보리로 만든 짬뽕라면의 콜라보로 20%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라이브방송은 농협몰과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오전 11시 오후 5시부터 각각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상품구매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무료배송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LX, 새만금 7공구 일원서

디지털 정밀농업 시연회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초경량 수직이착륙 드론을 활용해 디지털 농업에 선도한다.

LX는 지난 29일 새만금 7공구 일원에서 아시아 식량안보 위기대응 디지털 정밀농업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새만금아시아식량안보추진위원회 관계자와 인도네시아 정치인 등이 참석했다.

LX는 이날 농업회사법인 리틀퍼머스와 협업해 새만금 농생명부지에서 트랙터와 sTOL(전기 수직이착륙기) 드론을 결합한 정밀농업을 선보였다.

이 자리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작물 생산상황 모니터링과 작황 분석, 트랙터를 활용한 농작기구 자동화를 시연했다.

이 행사는 드론을 통해 대규모 부지를 단시간에 촬영한 후 드론이 전송한 농작물 사진과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결과를 트랙터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LX는 농업분야에 전 과정의 기계화와 드론 등의 기술을 활용할 경우 간척지 대규모 경작 실증을 통해 생산성을 24%이상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이번 방문은 식량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한국을 식량안보 핵심 협력국가로 결정, 새만금 농생명부지와 LX의 기술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LX는 자체 개발한 드론을 활용해 인도네시아의 3차원 토지소유권 등록사업 등과 연계한 융·복합 해외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스



2022 콘텐츠 창작·창업 캠프' 참가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도내 우수 콘텐츠 창업 아이디어, 2박 3일간 발굴

전북 콘텐츠코리아랩, 2022 콘텐츠 창작·창업 캠프 성료

(재)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원장 최우석)에서 전북도콘텐츠코리아랩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한 '2022 콘텐츠 창작·창업 캠프'가 지난 28일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2022 콘텐츠 창작·창업 캠프는 콘텐츠 창업아이디어를 보유한 전북도민 21팀(40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28일부터 2박 3일간 군산 에이브호텔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캠프는 콘텐츠 창업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콘텐츠 창업 전문가 강연 △사업계획서 작성 전문가 매칭 멘토링 △콘텐츠 창작·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콘텐츠 창업역량 발굴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아이디어 경진대회 결과로는 △스토리 기반 2D 퍼즐 플랫폼 게임개발의 Attention(팀장 전서진)팀이 대상, △AI(인공지능)기술 활용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의 시메타(팀장 천준은)팀이 최우수상, △가피고(팀장 박수현)팀, 하유린(팀장 하유린)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본 캠프 총평에서 진흥원 최훈 ICT 융합본부장은 "이 캠프를 통해 콘텐츠 창업에 대한 관심도를 유발하고, 예비창업자와 전문가 예비창업자 간 네트워킹을 통해 콘텐츠 창업 생태계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통해 예비창업자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본인의 아이디어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 콘텐츠코리아랩은 최적화된 콘텐츠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지역 특화된 콘텐츠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콘텐츠 창업 토크콘서트, 콘텐츠 창작캠프 아카데미, 콘텐츠 예비창업 사업화, 콘텐츠 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등 예비창업자 발굴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전라북도 콘텐츠코리아랩은 최적화된 콘텐츠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지역 특화된 콘텐츠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콘텐츠 창업 토크콘서트, 콘텐츠 창작캠프 아카데미, 콘텐츠 예비창업 사업화, 콘텐츠 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등 예비창업자 발굴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전라북도 콘텐츠코리아랩은 최적화된 콘텐츠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지역 특화된 콘텐츠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콘텐츠 창업 토크콘서트, 콘텐츠 창작캠프 아카데미, 콘텐츠 예비창업 사업화, 콘텐츠 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등 예비창업자 발굴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김재훈 기자